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6. 10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리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은행



주간 달러/원 동향(6/3~6/7)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 4월 PCE 물가 둔화가 예상에 부합한 측면이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환율은 하락 출발. 이어 미국 제조업지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속 달러 약세에도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영향 속 소폭 하락
- 중반, 미국 4월 구인건수 감소로 인한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을 반영하며 달러 약세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하락
- 후반, ECB의 매파적 금리인하 결정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에 따른 고용 냉각 기대에 약달러 분위기 이어진 측면 반영하며 1360원대 중반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 조짐보다는 여전히 탄탄한 견조세를 보인 측면이 금리 인하 시기를 뒤로 연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달러 강세를 견인하는 주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주중 FOMC와 CPI 발표 등에 따른 경계감 강화 등도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재차 고점 상승에 따른 수출업체 달러 매도 확대 등이 환율 상단 제한할 것으로 보임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82.0	1,383.1	1,363.2	1,365.3	-16.7

예상거래범위

1,375원 ~ 1,385원

엔·유로화 동향 (6/3~6/7)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존 5월 CPI 반등과 미국 제조업 부문 경기 부진에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 보이며 출발. 이어 ECB 통화정책회의 다가오는 가운데 선제적 금리인하 개시가 예상되는 측면이 유로화 약세를 견인
- 중반,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결정으로 ECB 피벗 전망이 더욱 강화되며 추가 약세
- 후반, ECB의 25bp 금리인하 결정에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점 등이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를 차단하며 가치 반등. 이어 주 후반, 미국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와 ECB와 연준 간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부각 등에 큰 폭 약세 보이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48	1.0916	1.0799	1.0803	-0.0045

엔화 동향

- 주초, 예상치 하회한 미국 5월 ISM 제조업 PMI 발표 후 미 국채금리 하락한 영향으로 엔화는 달러 대비 강세 출발. 이어 BOJ의 국채 매입 축소 검토 가능성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추가 강세
- 중반, 미국 민간고용 둔화와 뉴욕증시 상승세 등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약세 전환
- 후반, BOJ 총재의 완화적 금융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채권 매입 축소 필요성 언급 등 다소 매파적인 기조에 반등. 이어 주 후반, 미국 고용지표가 여전히 견조한 측면이 미 국채금리 상승을 견인하며 미-일금리차 확대된 가운데 약세 재전환 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6.1	157.1	154.5	156.8	+0.7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6/3~6/7)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국 4월 PCE지표가 우호적으로 해석된 영향 속에 외국인의 장중 10년 국채선물 매수 강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이어, 미 ISM 제조업 PMI 지표를 소화하며 국고채 시장 강세 분위기 이어진 국면
- 중반 들어, 미국 노동부 발표 4월 고용 보고서 상의 구인건수 감소 영향 등 고용 냉각 분위기 반영하며 미 국채 시장 강세 흐름에 동조
- 후반 들어, 현충일 기간 중 단행된 BOC와 ECB의 금리 인하 피벗 영향을 반영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수가 이어지며 금리 하락세 지속 다만, 5월 고용지표를 대기하며 일부 경계감 강화되는 분위기도 나타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 PCE 지표 발표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감도는 분위기에서 국내 석유, 가스전 매장 가능성의 깜짝 소식 등으로 코스피 상승 출발. 이어 외국인 기관의 대규모 매도 강화 속에 코스피는 하락 전환 나타난 가운데 특정 이슈가 상존한 업종에서 선별적 상승 흐름 보인 양상
- 중반 들어, 미 경기 및 고용 냉각 조짐 등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속에 미 국채 금리 연속 하락세 등에 따라 큰 폭 상승 흐름
- 후반 들어, 미 뉴욕증시의 엔비디아 훈풍에 따른 반도체 강세 속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확대 등으로 상승 이어지며 마감

